

# 경북지역 퇴계 선생 설화와 공민왕 설화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의미

류 명 옥\*

I. 서론
II. 구비설화에 나타난 퇴계 선생 설화의 전승양상
III. 인접지역 인물전설의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식
IV.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퇴계 선생 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보고, 같은 지역에 전승되는 공민왕 설화와 비교하여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퇴계 선생 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보면, 異人의 모습과 인간적이고 본성적인 모습, 도학자로서의 모습으로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도학자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퇴계 선생의 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경북지역에서 이러한 면모가 두드러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는 설화들도 있다.

특히 퇴계 선생 관련 설화의 경우 퇴계 선생 외에, 지역의 대표적 인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강의초빙교수[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visiting professor of Global Korean Studies)]

물 전설인 공민왕 전설이 함께 전승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도학자의 인물과 역사적 인물이 함께 전승되는 지역의 경우 인물 전설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설화를 전승하는 전승자들의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널리 알려진 인물의 인물전설이 한 지역에서 함께 전승될 때 설화 구연자들의 전승 의식을 살펴보아, 공동체 또는 지역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전승 의식에 담겨진 설화 구연자들의 인물에 대한 평가는 인물전설의 전승 연행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주제어

구전설화, 퇴계, 공민왕, 인물전설, 경북지역, 전승의식

## I. 서론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 사람에 대한 평가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설화에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 또는 가공의 인물, 역사적 인물 등 다양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설화 구연자들의 인식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설화 속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경북지역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인물로 퇴계 선생이 있다. 퇴계 선생은 도학자로서의 모습과 문학자로서의 모습 등 여러 방면에서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다양한 모습은 퇴계 선생의 탄생담, 학문에 대한 이야기 등이 널리 전승되는 설화를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퇴계 선생에 대해서는 도학자적인 모습 외에도性に 대한 이야기가 널리 전승되고 있다. 높이 추앙되고 있는 인물인 퇴계 선생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전승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비설화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한 인물에 대해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전승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퇴계 선생 설화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주로 한문학에서 퇴계 선생의 학문과 철학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전설화에 나타나는 퇴계 선생 설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퇴계 선생 설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의 상호 再歸的 양상을 살피는 연구가 있다.<sup>1)</sup> 이 연구에서는 문헌설화를 다시 구비전승하는 과정과 구비설화가 다시 문헌설화로 기록되어 문자로 정착되는 것에 주목하여 퇴계 설화의 구비설화와 문헌설화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사실 퇴계 설화는 문헌설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둘의 영향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중요한 일이라 할

1) 강재철, 이영수, 「설화의 구비전승과 문헌전승의 상호 재귀적(再歸的) 양상」, 『국문학논집』 제21호,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1.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등장하는 설화의 性 수용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sup>2)</sup> 이 연구에서는 그간 퇴계 선생 설화에 나타나는 性 담론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높은 학식을 갖춘 퇴계 선생 설화에서 性과 관련된 설화가 전승된다는 것은 퇴계 선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설화를 전승한다고 하여 퇴계 선생의 인물설화가 가지는 의미를 밝혔다. 또 다른 연구로는 퇴계 선생 설화 중에서 탄생담에 주목하여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에 나타나는 민중적 시각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sup>3)</sup> 이 연구는 문헌설화와 구비설화를 비교하여 퇴계 선생 설화를 전승하는 민중들의 의식을 살피고 있어서 민중들이 퇴계 선생의 인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하는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퇴계 선생 설화에 나타나는 지식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sup>4)</sup> 퇴계 설화에서 퇴계가 보여준 행적은 설화 향유층의 욕망을 보여준다고 하여, 설화 향유층의 욕망은 가능세계 속의 퇴계를 통해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며 학문을 닦는 지식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승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퇴계 이황 인물전설의 담론화 양상과 의미의 분기를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sup>5)</sup> 퇴계 선생 설화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퇴계 선생 설화의 담론 구축과 의미들을 살펴보고 있다. 두 연구는 퇴계 선생 설화의 유학자 또는 도학자적인 면모 외에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근

- 
- 2) 김용기, 「퇴계 이황 등장 설화의 性 수용 양상과 설화적 인식」, 『우리文學研究』 제40집, 우리문화회, 2013, 신호림, 「退溪에 대한 설화적 기억과 性 담론 고찰」, 『고전과 해석』 제30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0.
  - 3) 김종대, 「퇴계선생 탄생담을 통해본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민중적 시각과 그 차이」, 『어문논집』 제56집, 중앙어문학회, 2013.
  - 4) 신호림, 「退溪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가능세계의 관점에서-」, 『고전과 해석』 제3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 5) 한정훈, 「퇴계 이황 설화의 담론화 양상과 의미의 분기」, 『구비문학연구』 제64집, 한국구비문학회, 2022.

거를 마련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는 지니는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퇴계 선생 설화에 대한 연구들은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퇴계 선생에 대한 문헌설화들을 보면 퇴계 선생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이야기와 도학자로서의 훌륭한 모습들이 전승되고 있다. 그러나 구비설화에 전승되는 퇴계 선생 설화에서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기에 퇴계 선생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계 선생이 학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후학을 양성했던 경북지역은 퇴계 선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지만, 경북지역에 전승되는 퇴계 선생에 대한 구비설화에는 도학자로서의 모습만 전승하지 않는다. 특히 경북지역의 경우 안동과 봉화지역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두 지역에는 유학자로서 뛰어난 퇴계 선생과 역사적 인물로 유명한 공민왕 인물전설이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하지만 두 인물을 바라보는 설화 전승자들은 인접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설화를 전승하지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전설에 중심을 두고 설화를 전승한다는 점에서 설화의 전승 및 연행 맥락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의 두 인물전설은 서로 어떠한 영향관계에서 전승될 수 있을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퇴계 선생 구비설화의 전승양상을 살펴보아, 설화에 나타나 퇴계 선생은 어떠한 인물로 전승되고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퇴계 선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북지역 설화에서 퇴계 선생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구비설화에 나타난 퇴계 선생 설화의 전승양상

퇴계 선생과 관련된 구비설화는 주로 경북과 경남지역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다. 주로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퇴계 선생이 후학을 양성했던 도학자로서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이 경북지역이고, 퇴계 선생의 처가가 경남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경북지역에 전승되는 퇴계 선생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화 전승의 지역이 명확한 설화 자료를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구비설화에 나타나는 퇴계 선생의 모습은 3가지로 전승되고 있으며, 먼저 퇴계 선생을 異人의 모습으로 전승하고 있는 설화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 제목	제보자	대계번호
1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에 얹힌 이야기	이순택(남,79)	강원도 강릉시(2-1)
2	이퇴계 선생	성관원(남,56)	경상남도 거창군(8-5)
3	퇴계 선생과 총각 귀신	안재국(남,70)	경상남도 화순군(6-11)
4	조월천의 상사뱀 물리친 퇴계선생	배동벽(남,75)	대구시(7-13)
5	퇴계 선생 이야기	서진철(남,47)	경상남도 김해군(8-9)
6	퇴계 선생을 시험한 문창성	백낙환(남,90)	전라북도 전주시(5-2)
7	축지법을 쓰는 퇴계선생	우홍태(남,69)	경상북도 봉화군(7-10)

위의 설화들을 보면 다른 인물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異人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이인이라고 하면 도술을 부리거나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한 사람을 말한다. 퇴계 선생 설화에서는 흔히 알고 있는 도학자적인 모습보다는 축지법을 쓰고 귀신을 퇴치하는 인물로 전승되고 있다. 1번의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에 얹힌 이야기> 설화에서는 축지법을 쓰고 귀신을 퇴치하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나타난다. 이러한 설화는 퇴계 선생이 율곡 선생의 뛰어난 학문적 자질을 知機로 알아보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설화 앞부분에서는

小國에 퇴계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 났다는 것을 꽤 씹하게 여겨 퇴계를 죽이려고 했던 백두산 신령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때 대구 보령산 신령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설화들은 퇴계 선생이 신령들과 함께 신선이 가지고 노는 바둑을 함께 두기도 하며, 신령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설화의 주요한 의미이다.

그리고 3, 4, 5번의 설화들은 보면, 퇴계 선생은 사람에게 썩여 있는 귀신을 볼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설화에 등장하는 귀신은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고 퇴계 선생 눈에만 보인다. 퇴계 선생의 이러한 면모는 異人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은 귀신을 퇴치할 능력 또한 지니고 있는데, 經을 읽거나 눈을 한번 찔러서 귀신을 퇴치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위의 목록 중에서 퇴계 선생의 가장 異人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설화는 5번의 <퇴계 선생 이야기>이다. 이 설화에서 퇴계 선생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암 선생의 딸이 임금의 아들 태자와 혼인하려고 하는데 퇴계 선생은 태자의 모습으로 변한 금강산 천년 묵은 혼령을 알아보고는 퇴치해 주고 진짜 태자를 찾아와서 혼인시켜 준다. 이러한 이야기는 앞서 살핀 귀신을 퇴치하는 이야기의 하나이다. 그러나 퇴계 선생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강산 제일 못에 사는 용이 퇴계 선생을 찾아와서 천년 묵은 여우와 서로 得天하려고 싸우는 데 기운이 모자란다고 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이 말을 들은 퇴계 선생은 그 자리에서 침을 세 번 뱉는 것으로 천년 묵은 여우를 물리친다.

앞서 살펴본 설화들은 귀신과 大人을 알아보는 知機의 능력을 갖춘 모습과 도술을 부려 귀신이나 천년 묵은 여우를 물리치는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다. 사실 퇴계 선생의 知機와 귀신 퇴치의 모습은 다른 인물설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異人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퇴계 선생의 異人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설화들은 퇴계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경북지역에서는 전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상북도 봉화지역에 퇴계 선생의 異人적인 모습을

전승하는 설화가 있지만, 이 설화에서는 퇴계 선생이 천문지리도 갖추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축지법 밖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승하고 있다. 이 설화는 퇴계 선생의 異人적인 면모를 부각시키는 설화와 달리, 퇴계 선생이 어떻게 신이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니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설화이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설화들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다음으로 퇴계 선생을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긍정하여 전승하는 설화들이 있다. 이 설화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 제목	제보자	대계번호
1	퇴계 선생과 그의 부인	남길우(남,67)	경상남도 의령군(8-10)
2	퇴계 선생과 그 부인	왕정효(남,57)	경상남도 의령군(8-10)
3	퇴계 선생과 박씨 부인	박영화(남,64)	경상북도 군위군(7-11)
4	이퇴계가 명명한 가례동천(嘉禮東川)	한진식(남,61)	경상남도 의령군(8-11)
5	율곡과 퇴계의 부부 생활	류영수(남,60)	경상남도 밀양군(8-8)
6	이퇴계 선생의 봉투	박정수(남,60)	경기도 여주군(1-2)

인물설화에서는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훌륭한 면모를 드러내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내거나 금기시하는 性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전승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도학자와 같은 인물설화에서는 유독 여성과 관련된 설화나 性 담론에 대한 설화들이 전승된다. 이러한 인물들의 설화에서 여성에 대한 문제나 性 담론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인식이 함께 존재한다.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에게 여성과 性の 문제를 연관시킴으로써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인식이다. 위의 설화 목록에서 1번의 설화 <퇴계 선생과 그의 부인>과 5번의 설화 <율곡과 퇴계의 부부 생활> 설화에서는 퇴계 선생의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주려고 한다. 낮에는 점잖고 고고한 모습을 지닌 인물이지만, 밤에는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인식으로는 퇴계 선생과 같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도학적인 면모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도 너무 禮에 얽매이기보다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위의 목록에서 전승되는 설화 구연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설화를 구연하고 있다. 특히 5번의 <율곡과 퇴계의 부부 생활> 설화에서는 율곡과 퇴계의 제자들이 퇴계 선생의 부부 생활을 관찰하는 이야기이다. 율곡 선생의 부부 생활을 관찰한 두 선생의 제자들은 낮과 밤의 모습이 한결같은 율곡 선생의 모습을 보고 현명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제자들은 퇴계 선생에게 율곡 선생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다. 제자들의 물음에 퇴계 선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퇴계 선생한테 그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무후(無後)할거다. 부부 생활은 점잖은 거로 갖다가 지켜서는 안 된다.”<sup>6)</sup>

퇴계 선생은 율곡 선생의 한결같은 모습으로 인해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너무 고고한 모습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융통성 있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설화 구연자들은 퇴계 선생이 율곡 선생보다 더 융통성 있는 인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성(性) 관련 설화들을 구연하고 있다.

퇴계 선생 설화에서 특히 여성과性に 대한 이야기가 주로 경상남도에서 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퇴계 선생의 처가가 경상남도 거창과 의령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화들은 퇴계 선생과 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의性に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적이고 융통성 있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퇴계 선생을 기억하고 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한국구비문학대계』 8-8(경상남도 밀양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126~128.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의 도학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승되고 있는 설화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화 제목	제보자	대계번호
1	조월천을 살려준 퇴계 선생	최귀식(남,71)	경상북도 군위군(7-11)
2	구대손 구출한 퇴계선생	최경태(남,65)	경상북도 군위군(7-11)
3	갈천 선생과 퇴계 선생	김호준(남,88)	경상북도 구미시(7-15)
4	검소한 퇴계 선생	김진식(남,73)	대구시(7-13)
5	평의 보은으로 잡은 퇴계 자손의 묘 터	박영희(남,75)	경상북도 군위군(7-11)
6	과부 며느리를 개가시킨 퇴계선생	신성균(남,74)	경상북도 예천군(7-17)
7	퇴계 선조의 무덤	신기수(남,67)	경상북도 영덕군(7-6)
8	청량산의 지명과 인물들	정세원(남,63)	경상북도 봉화군(7-10)
9	명당을 피한 퇴계선생 묘터	이병달(남,59) 정세원(남,63)	경상북도 봉화군(7-10)
10	이퇴계 외가의 집 터	이원우(남)	『퇴계설화연구』(안동시)
11	퇴계 선생 나실 적에 박씨 부인의 태몽	이규식(남)	『퇴계설화연구』(안동시)
12	집 터 제습 후 퇴계 선생 태어나다	남재주(남)	『퇴계설화연구』(안동시)

사실 위의 설화 목록들을 보면 퇴계 선생의 도학자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기보다는 大人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구비설화에서는 문헌 설화와 달리 구체적인 道 또는 道學에 대한 이론과 학문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위의 설화들이 앞에서 살펴본 異人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설화와 차별을 보이는 부분은 학문적으로 뛰어나면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퇴계 선생의 학문과 인품이 드러나는 설화이기 때문에 도학자로서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목록 중에서 1번 설화의 <조월천을 살려준 퇴계 선생>에서는 퇴계 선생이 제자 조월천이 너무 청빈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조월천은 퇴계 선생의 부탁으로 문상을 갔는데 상주가 빨간 손수

건으로 얼굴을 닦고 개장국을 먹는 모습을 보고 무식하다고 여겨 문상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를 본 퇴계 선생은 효성이 지극하여 血淚가 흘러 하얀 수건이 전부 물들인 것이라고 한다. 사실 설화 이야기의 논리성으로 보자면 적절하지 않지만, 이 설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禮에 얽매이지 않는 퇴계 선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의 설화 <갈천 선생과 퇴계 선생>에서는 갈천 선생이 자기에게 학문을 배우러 온 퇴계 선생과의 토론을 통해 퇴계 선생의 뛰어난 인물됨을 보여준다. 다른 훌륭한 인물을 통해서 퇴계 선생은 그보다 더 뛰어난 인물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설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퇴계 선생의 도학자적인 면모는 위의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경북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경북지역은 퇴계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후학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던 곳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을 지닌 퇴계 선생의 모습이 전승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앞서 살펴본 異人적인 모습의 설화 전승과 차별을 보이는 부분이다. 퇴계 선생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지역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도학자적인 모습이 전승되는 반면에,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다른 인물설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도술을 부리고 知機의 모습을 갖춘 인물전설로 전승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비설화에 전승되는 퇴계 선생의 모습은 퇴계 선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에서는 퇴계 선생만의 특징이 반영되어 전승되는 반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다른 인물전설의 모습과 비슷하게 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인접지역 인물전설의 인물에 대한 평가와 인식

앞서 경북지역에서 퇴계 선생의 훌륭한 인품을 지니는 도학자로서의 모습이 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

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경북지역에 전승되는 설화를 보면 모든 설화에서 훌륭한 인품을 지닌 퇴계 선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경북지역에서 전승되는 퇴계 선생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목록 중에서 경북지역에 전승되는 설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안동에서 전승되는 퇴계 선생 관련 설화들은 대부분 탄생담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안동시 예안면은 퇴계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탄생담이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탄생담은 대부분 명당이라는 인식과 결합하여 전승되고 있다. 이 설화를 전승하는 전승자들은 좋은 명당에 묘를 써야 훌륭한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당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퇴계 선생이 태어난 안동시 예안면과 인접해 있는 경상북도 봉화지역에서는 퇴계 선생에 대한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과 재산면이 인접해 있는 청량산은 예로부터 名山으로 알려졌다. 퇴계 선생 역시 ‘청량산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량산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으며, 청량산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시와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퇴계 선생이 아끼던 청량산에도 퇴계 선생 관련 설화가 전승되고 있다.

퇴계 선생이 소년 시절에 인제 거 와서 인제 막을 참, 초막을 짓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후대에 후대에 제자들 자손이 인제 오산당을 세웠다, 글치요. 옛날에 그래 보만 이오관산호(以吾觀山好)라는 그런 문자가 있습니다. 이오관산호라 그는 거 나오는데, 그 옛날에 인제 ‘내가 산을 보만 좋아 근다.’ 그는 옛날 중국의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퇴계가 인제 오산당이라 카는 것은, 그 어른도 산을 좋아 하 시고, 그래 나중에 그 문제가 일어나가주고, 지금 청량산이 퇴계 그 전부 전다지 입 안(立案)으로 났부랬잖습니까? 산이 다 뻗부렀는데. (청중: 저 산은 퇴계가 그 뻗 어부랬잖는가? 그거, 순전히 그거 뻗었부렀어.)<sup>7)</sup>

7) 『한국구비문학대계』 7-10(경상북도 봉화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775~776.

청량산 일대에 살고 있는 경상북도 봉화지역 주민 중에서는 청량산이 퇴계 선생의 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설화 구연자가 立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산서원이 나라에 사액을 받으면서 도산서원 일대의 땅을 서원에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다보니 청량산 일대가 도산서원으로 편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 편의 설화만 전승되고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는 설화라고 할 수 없지만, 도산서원이 건립되던 당시를 설명해 주는 설화라는 점에서 퇴계 선생의 도학자 또는 유학자로서의 모습이 담겨진 설화와는 차별성을 보이는 설화라 할 수 있다. 도산서원이 건립되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심정이 설화에 나타나고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과 예안면,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과 재산면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이며 퇴계 선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봉화지역에서는 도산서원 건립과 관련하여 퇴계 선생에 대한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1~2편의 설화가 대표성을 가지는 설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 사건이 구비설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설화 전승과 연행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설화 구연자는 퇴계 선생이 청량산을 아주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청량산이 名山인 이유를 훌륭한 인물들이 머물고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퇴계 선생도 포함되어 있다. 도학자 또는 유학자로서의 퇴계 선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자신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도학자적은 면모의 긍정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퇴계 선생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설화를 전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북지역에는 퇴계 선생 외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앞서 살펴본 경상북도 봉화지역에 전승되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청량산 꼭대기에 모셔진 공민왕 사당에 마을 사람들이 洞祭를 지내고, ‘봉화 청량산 공민왕 문화제’가 개최될 만큼 공민왕을 신성시하고 있다.<sup>8)</sup>

이것들이 인제 이 그 공민왕 숭배정신이 온갖 동네에 제사지내는 동신에도 그 어른의 친척을 위하고 또 뭐 그 어른을 뭐 위하고 뭐 여러 가지 위하는 거는 우리 민속이 고려조를 역사계 충성시례 생각했고 특히나 공민왕한테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강했다 카는 게 이기 월, 우리 민속적인 자량이래.<sup>9)</sup>

특히 위의 설화를 보면 봉화 사람들은 공민왕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민왕을 신성시하여 여러 마을에서 공민왕을 모시는 洞祭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공민왕을 역사 속의 왕의 모습에서 나아가 신적인 존재로까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 봉화 지역 사람들은 공민왕이 봉화지역에 왔다가 갔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살고 있는 봉화지역이라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민왕이 봉화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이처럼 봉화지역 사람들은 공민왕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방문 또는 경유하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민왕이라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자신이 살고 있는 봉화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봉화지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공간이 되면서 신성시되는 공간으로 인식된다. 봉화지역에 전승되는 공민왕 관련 설화들을 보면 왕이 다녀간 지역이기 때문에 명당이라고 이야기한다. 공민왕으로 인해 땅 또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봉화지역은 명당 또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형성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상북도 봉화지역의 경우, 설화 구연과 연행의 측면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학자로서 높은 학식을 갖춘 퇴계 선생 인물전설과 역사적 인물로 잘 알려진 공민왕 인물전설이 함께 전승

8) 안동지역에는 풍산읍 수동의 국신당, 하회 국신당, 청량산 산성의 공민왕당, 용상동 공민당, 청량산 일대의 부인당 등 공민왕 또는 공민왕가계신을 모시고 있어 공민왕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뽕다리밟기와 같은 제의와 함께 남아 있는 민속적 측면에서 공민왕의 인물은 지역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고 있다.

9) 임재해, 「공민왕 몽진 설화에 나타난 주민들의 역사의식」, 『구비문학연구』 제21집, 2005, p.334 재인용.

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두 인물 모두 뛰어난 능력과 인품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에서 우위를 가릴 수 없다. 그렇다면 두 인물전설은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민왕에 대한 설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 생각 같아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황(공민왕)이 웅거했다는 것이, 길지가 아니겠는가? 공민왕이 여그 와서 2년인가 3년인가 그럴 거예요. 웅거했다라면은 그 계 도읍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안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고려 시대 때에 공민왕이 웅거했다는 자체가 하나의 도읍지다’ 이래 보고 있고.<sup>10)</sup>

공민왕 당이 저계서 그래 인제, “어데 가서 앓을 자리를 보라.” 카이께. 뭘 띄었다 그러더라. 띄우께 바로 여 와 인제 이 골로 들와주고고, 이 골로 들와 앓았다 카고. 옛날에 어른들 말씀이, 저 우에 왜. 거기 와서 미리 앓더라마는 그래가주 거게 당이 밑에 있으이께네. 거와 잡고, 그래 인제 그 밑으는 인제 또 참 이 아래는 두 형제분이, 이 밑에는 동상이 있고 뭐 그래 잡았다 이카는데.<sup>11)</sup>

위의 설화 자료는 공민왕의 인물에 대한 구비설화이며, 경상북도 봉화 지역에서 전승되는 설화이다. 봉화지역에 전승되는 공민왕 관련 설화를 보면, 공민왕이 다녀간 봉화지역을 吉地 또는 도읍지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안동과 청량산 일대가 임시수도였다는 신화적 진실을 제의 관련 구술상관물을 통해 보증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은 아니다.<sup>12)</sup> 결국 안동지역 일대는 공민왕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지역이며, 공민왕의 안동 몽진은 고려시대 안동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된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은 공민왕을 특

10) 박종우(남,63세), 명호면 북곡리(2002)<임재해, 「공민왕 몽진 설화에 나타난 주민들의 역사인식」, 『구비문학연구』 제2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년 자료 재인용.>

11) 강도순(남,83세), 재산면 신남리(2004)<조정현, 「안동지역 공민왕 관련 민속의 전승 양상과 주민들의 ‘문화 읽기와 쓰기’」,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346쪽 재인용.>

12) 조정현, 「안동지역 공민왕 관련 민속의 전승양상과 주민들의 ‘문화 읽기와 쓰기’」,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 337쪽 참조.

별하게 생각하여 구비설화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왕이 수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며, 왕이 한 지역에서 몇 달을 머무르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지역민들 또는 설화 구연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줌으로써 설화적 상상력을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동지역과 인접한 봉화지역은 퇴계 선생 설화와 공민왕 설화가 함께 공존하며 전승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는 유학자의 모습으로 하나는 민속적인 측면에서 전승되기 때문에, 설화 전승자 또는 설화 전승 지역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측면에서 설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안동지역 일대가 공민왕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안동지역에 전승되는 낫다리밟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민왕 일행이 안동에 도착하여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안동지역 사람들이 등을 맞대어 사람 다리를 만들어 왕을 건너게 해 주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것을 보아도, 공민왕에 대한 지역공동체 사람들과의 강한 인연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퇴계 선생과 공민왕의 두 인물설화를 보면,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서는 퇴계 선생이 태어난 곳이라는 점에서 퇴계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강조하는 혈연 및 학연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있는 반면에, 경상북도 봉화지역에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왕이 머물고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차이점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경상북도 봉화지역에 전승되는 인물전설 중에는 역사 속의 인물과 도학자로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인물 중에서 역사적 인물이 설화 전승에 선택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역사 속에 등장하며 직접 마을에 와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기록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도학자로서 유학을 강론했던 인물보다는 설화 전승에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13) 경상북도 봉화지역은 안동지역과 비교하면 각성촌의 마을이 있어서 공민왕과 같은 인물이 쉽게 마을공동체와 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설화 전승의 연행과 전승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비슷한 지역 또는 인접해 있는 지역의 설화는 동일한 또는 비슷한 설화가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사회문화 공동체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인접 지역은 비슷한 소재의 설화가 전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 선생과 공민왕 인물전설을 통해서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도 동일한 인물의 모습을 전승하지 않으며, 지역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다른 전승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설화 전승에는 지역공동체 또는 학연공동체 등이 공동체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있는가에 따라 설화 전승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설화를 구연하는 구연자들에게 퇴계 선생의 道學과 禮學과 같은 추상적 세계보다는 현실적인 세계와 삶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속이나 세시풍속과 같은 의례가 민중들에게 가깝게 자리잡는 것 또한 이러한 설화를 구연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퇴계 선생이라는 지역문화 또는 지역공동체의 정전화 속에서 공민왕에 대한 인물전설의 지속적인 전승은 설화 전승의 또 다른 면모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sup>14)</sup> 따라서 한 지역에 뛰어난 인물전설이 함께 전승될 때,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한 개인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결속이 어디에 더 중심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두 인물 사이에 다른 관점을 보이는 설화를 전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퇴계가 비록 유학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지만 성리학적 지식은 설화를 향유하던 사람들에게 있어 구체적이기보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왔을 것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신호람, 「退溪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가능세계의 관점에서-」, 『고전과 해석』 제3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53쪽 참조.)

15) 안동과 봉화지역에서 아직까지 퇴계 설화가 지속적으로 전승된다는 것은 여전히 지식을 둘러싼 갈등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또한 퇴계의 지식과 함께 나란히 존재하는 공민왕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인물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설화가 계속해서 전승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신호람, 「退溪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가능세계의 관점에서-」, 『고전과 해석』 제36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22, 55쪽 참조.)

## IV. 결론

지금까지 구비설화에 나타나는 퇴계 선생 설화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설화의 전승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퇴계 선생과 관련된 구비설화를 살펴보면, 異人적인 모습과 인간적이고 본성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는 모습, 道學者적인 면모가 부각되어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는 주로 道學者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접 지역인 경상북도 봉화지역에서는 퇴계 선생의 훌륭한 면모를 인정하면서도 한계점을 함께 설화에 전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설화는 퇴계 선생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지역별로 마을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의 자연적·사회문화적인 요인에서 생겨나는 전승 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북지역에 전승되는 퇴계 선생 설화는 道學者적인 측면에 강조된 모습과 구비설화를 전승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전승 양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02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2월 28일부터 03월 1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3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0~1989.
- 강재철·이영수, 「설화의 구비전승과 문헌전승의 상호 재귀적(再歸的) 양상」, 『국문학논집』 21,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1, 249~277쪽.
- 김용기, 「퇴계 이황 등장 설화의 性 수용 양상과 설화적 인식」,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화회, 2013, 47~75쪽.
- 김종대, 「퇴계선생 탄생담을 통해본 문헌설화와 구비설화의 민중적 시각과 그 차이」,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2013, 181~201쪽.
- 신호립, 「退溪에 대한 설화적 기억과 性 담론 고찰」, 『고전과 해석』 30, 고전문학한국연구학회, 2020, 211~236쪽.
- 신호립, 「退溪 설화에 나타난 지식의 성격과 의미」, 『고전과 해석』 36,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22, 35~61쪽.
- 임재해, 「공민왕 몽진 설화에 나타난 주민들의 역사의식」, 『구비문학연구』 21, 2005, 327~374쪽.
- 조정현, 「안동지역 공민왕 관련 민속의 전승양상과 주민들의 ‘문화 읽기와 쓰기」」, 『구비문학연구』 30, 한국구비문학회, 2010, 329~364쪽.
- 한정훈, 「퇴계 이황 설화의 담론화 양상과 의미의 분기」, 『구비문학연구』 64, 한국구비문학회, 2022, 75~121쪽.

Abstract

## Transmission patterns and meanings of Toegye's folktales in oral traditions in North Gyeongsang region

Ryu, Myeong-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nsmission patterns of Toegye's folktales, which are highly regarded in the Gyeongbuk region, and to find meaning by comparing them with the folktales of King Gongmin passed down in the same region. Looking at the transmission patterns of Toegye's folktales, they emerge as a distinguished character, human and natural, and Taoist figures. In particular, in the Gyeongbuk region, the appearance of a Taoist is prominent. It is natural that this aspect stands out in the Gyeongbuk reg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oegye's studies,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olktales that show negative evaluations.

In particular, in areas that show a negative evaluation of Toegye, the legend of King Gongmin, a representative character legend in the region, is passed down together in addition to Toegye. In areas where both the figures of the scholar and the historical figures are passed down, it is important in that it is possible to confirm various aspects of the character legend.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f the successors who pass on the folktales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evaluation of the characte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transmission consciousness of the folktales to see how they form a community or local culture when the person legend of a widely known character is passed down

together in one area. Additionally, the character evaluation of the folktales contained in the transmission consciousness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possible to comprehend the context of the character legend's transmission performance.

**keywords :**

folk tales, Toegye, Gongmin King, a legend of a person, North Gyeongsang region, a sense of transmission

